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9월 3일(주일) 제1162호

동성애 · 동성결혼 개헌 반대 서명운동

양성평등 삭제되고, 성적지향 보호되는 헌법 개정 막아야
동성애자 회복 기회 가로막는 시도 ... 반대 목소리 내야

오늘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동성애·동성결혼 개헌 반대 서명운동'을 실시한다.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주도하는 이번 서명운동에는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개신교는 물론 천주교와 불교, 유교 등 다른 종교계도 대거 참여한다. 동반연은 지난 8월 16일 성명서를 내고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 간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동반연 홈페이지(www.hisland.org)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최근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지난 1월부터 6개월 간 논의를 거쳐 현행 헌법의 혼인조항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 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까지 11차례 열릴 예정이다.

양성평등에 기초한 현행 헌법이 성

평등에 기초한 헌법으로 개정되면 동성결혼과 동성애가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발생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선 양성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가 억압된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건전한 비판마저 못하게 된다. 또한 외국 사례를 볼 때 향후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돼, 동성애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의 폐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고, 에이즈 치료비 마련을 위한 국민들의 부담이 폭증한다. 더 심각한 것은 건강한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는 점이다. 자녀를 낳을 수 없고, 남녀의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가정으로 구성된 사회가 건강할 리 만무하다.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동성애·동성결혼 허용 개헌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이 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결국 동성애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관련기사 4-5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한국교회 선교지도자 초청 세미나

9월 9일 오전 10시 양재 화평홀

한국로잔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한국교회 선교지도자 초청 세미나가 오는 9월 9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열린다. '로잔운동과 한국교회의 선교적 역할에 대한 성찰과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마이클 오 대표(국제로잔위원회)가 '글로벌 로잔운동의 역사와 전망', 한정국 선교사(전 KWMA 사무총장)가 '로잔운동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강의한다. 온누리교회가 지향하는 선교를 더욱 깊이 알고 싶은 성도들이 참석하면 좋다.

로잔운동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복음화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시작됐다.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98개국에서 4,200여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한국로잔위원회를 중심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한국로잔위원회 신임 의장으로 추대됐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오늘 대전 온누리교회 창립 14주년

오늘(3일)은 대전 온누리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주일이다. 대전 온누리교회는 2003년 9월 7일 창립한 이래 예배와 양육, 공동체 사역, 해외선교와 사회선교에 집중해오고 있다.

대전 온누리교회 창립 14주년 기념행사는 9월 6일 오후 7시 30분 대전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이재훈 담임목사와 함께하는 전교인 개강예배'에서 실시된다.

여성사역 특별부흥집회 '다시 복음으로'

9월 6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본당

서빙고 여성사역에서 특별부흥집회 '다시 복음으로'를 개최한다. 9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본당에서 진행한다. 이번 특별부흥집회에서는 김용의 선교사가 강의한다. 크리스천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날(6일) 오후에는 여성리더십훈련이 이어진다. 여성사역 리더십, JDS, 권사회가 대상이다.

문의: 02-3215-3201

탐방 꼭 한 번 가봐야 할 한국의 기독교 유적지

제주도에 교회와 복음 그리고 아픔이

제주 순례길 ... 기독교 역사와 삶 그리고 자연

한국에도 꼭 한 번 가봐야 할 기독교 유적지가 많다. 가족, 공동체, 순 단위로 방문하면 좋을 명소를 소개한다. 한국의 기독교 유적지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는 신앙교육이 된다. 이번 주에 소개할 곳은 '제주 순례길'이다. 복음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제주도에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으며,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제주 순례길의 출발점인 '금성교회'.

제주 순례길을 걸으면 제주도 기독교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만나 볼 수 있다. 아름다운 자연은 덤이다.

제주 순례길은 애월읍 '금성교회'부터 시작해 모슬포 '조남수 목사 공덕비'에서 끝이 난다. 총 4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 순례길에는 제주도 자생교회 같은 기독교 유적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을 엿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가마오름 평화박물관,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알 수 있는 순교지, 공덕비 등을 탐방할 수 있다.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만큼 큰 부흥을 맛봤던 내륙과 달리 제주도는 선교사들도 찾지 않은 땅이었다. 1900년대 초반 제주도에 눈은 눈이고 찾아와도 교회가 없었다. 내륙을 오가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있었는데 모진 핍박을 받았다고 한다. 집안 식구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의 핍박으로 고향을 떠나는 이들도 있었다. 1907년, 장로교 목사가 된 7인에게는 선교지로 떠나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때 이기풍 목사가 선교사가 되어 제주도에 왔다. 조선의 첫 번째 선교사가 선택한 곳이 제주도일 만큼 척박한 땅이었다. 이기풍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 받은 해 3월, 제주도에 자생적으로 기도모임이 생겼다. 서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조봉호가 아버지 이덕련에게 신앙을 물려받은 이도종 등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 기도모임의 일원이었던 이도종은 첫 번째 제주도민 출신 목사가 되었고, 그 기도모임은 제주도 첫 번째 자생교회인 금성교회의 모태가 되었다.

1코스 '순종의 길'을 따라

1코스는 순종의 길(14.2km)이다. 푸른 해변으로 유명한 애월읍에 있는 금성교회에서 시작된다. 금성교회를 지나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푸른 바다가 펼쳐진다. 바다 앞에 개울이 하나 있는데 이도종 목사가 어린 시절 즐겨 찾던 놀이터라고 한다. 그 길을 따라 걷다보면 1907년 3월부터 1909년 9월까지 예배처소로 사용됐던 '첫 기도처', 1924년에 지어진 '금성교회 옛 예배당'이 나온다. 하얀 외벽에 커다란 십자가가 있어 멀리서 봐도 금방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성교회 옛 예배당을 지나 큰 길을 건너면 금성리가 나오는데 해안가와와는 또 다른 풍경이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드넓은 밭이 보이는데 이곳이 금성리이다. 그 마을 안쪽에 '이도종 목사 생가'가 있다. 이도종 목사 생가를 지나 해안도로를 타고 협재교회까지 가는 길이 순종의 길 마지막 코스다.

2코스 '순교의 길'을 걸으며

2코스인 순교의 길(23km)은 에메랄드 빛 바다가 인상적인 협재해변과 맞닿아 있는 '협재교회'에서 시작해서 '이도종 목사 순교터'에서 끝이 난다. 협재교회는 이도종 목사가 청년 시절 개척한 교회다.

순교의 길은 협재교회를 지나 내륙 쪽인 '조수교회', '저지오름', '청수성결교회'로 이어진다. 그 길을 따라 걸으면 투박한 제주도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순교의 길 중간에 '평화박물관'이 있는데 꼭 둘러보기를 추천한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평화박물관은 '가마오름'에 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제주도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일제가 중국을 침략하는 전진기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으로 만들어진 '가마오름 지하기지'.

자 본토 방어기지로 활용됐다. 당시 일제는 제주도민을 강제로 징용해서 140여 개의 오름에 굴을 파고 지하 기지를 만들었다. 강제징용 생존자의 아들인 이영근 관장이 "그때의 아픔을 잊지 말자"며 사비를 털어 평화박물관을 개장했다. 평화박물관에 가면 제2땅굴을 방문할 수 있고, 가마오름에도 오를 수 있다.

이도종 목사 순교터가 2코스의 종점이다. 이도종 목사는 1948년 대정교회에서 시무하고 있었다. 제주 4.3 사건 직후인 6월 어느 날 심방을 위해 길을 떠났다가 무장대에게 잡혀 솔밭 구덩이에 생매장 당했다. 이도종 목사는 목숨을 잃는 순간에도 무장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했다고 한다. 제주도민 출신 첫 목회자였던 이도종 목사는 제주도에서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제주 4.3 사건으로 5개 교회가 불타고 17명이 순교했다.

3코스 '사명의 길'에는

3코스인 '사명의 길' (21km)에서는 제주 지역 교회들의 역사와 제주 4.3 사건 당시 수백 명의 강연을 통해 3천여 명이 자수하도록 도운 조수남 목사의 일화를 만날 수 있다.

3코스 '사명의 길'은 조수교회에서 시작된다. 조수교회를 지나 농로를 따라 가다 보면 이색적인 교회가 나온다. '순례자의 교회'다. 성인 5명이 들어가면 딱 찰 정도로 아주 작은 교회다. 인근 교회의 한 장로가 목회자나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든 교회이다. 이곳에서 잠시 쉬면서 심신을 회복시키는 것도 좋다.

콜레라에 걸려 신음하던 어린이를 기도로 치유한 윤식명 목사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윤 목사가 시무한 '용수교회'와 이도종 목사가 사역했던 '고산교회'를 지나면 사명의 길의 종점인 '조남수 목사 공덕비'가 나온다. 조남수 목사는 제주 4.3 사건 이후 자수를 권유하는 강연회를 열었는데 그때 3천여 명의 주민들이 자수를 하고 목숨을 구했다고 한다. 조

남수 목사 공덕비는 모슬포 인근 주민들이 1996년에 세운 것인데 지역 주민들이 세운 공덕비는 이것이 유일하다고 한다.

4코스 '화해의 길'과 맞닿으면

4코스 '화해의 길'(11.3km)은 이도종 목사 순교터에서 시작해서 이도종 목사가 마지막으로 시무했던 '대정교회', 육군 준장 장도영이 세웠고 근대화교회로 등록된 '강병대교회', 전도여행 중에 태을교도들에게 팔이 잘리고 그들을 용서한 윤식명 목사, 조남수 목사가 시무한 '모슬포교회', '조남수 목사 공덕비'까지 이어진다. 모슬포 교회는 자체적으로 잘 꾸민 자료실이 있다. 한 번 둘러보는 것도 좋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의 복음화율이 10%에 미치지 못한다. 걷기 좋은 가을 제주도 순례길을 걸으면서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면 어떨까.

* 제주 4.3 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를 기점으로 경찰·서북청년회의 탄압에 저항하고, 남한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사건이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이 있었는데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했다(정부진상조사위원회 자료). 당시 4.3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서북청년회가 기독교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기독교를 씩 좋아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한국 기독교가 반성해야 할 역사 중 하나이며, 그 때문에 제주도 복음화율이 낮다는 목소리도 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제주 4.3 평화공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 걷는 길

제주 CBS와 금성교회에 문의하면 제주 순례길 안내책자와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주 순례길을 안내해주는 모바일 GPS지도(www.jjcbblog.net/christian_road)를 따라 도보나 자전거, 차를 타고 순례길을 걸으면 된다.

제주 CBS(064-748-7400)
주소: 제주 제주시 신광로 15 제주 cbs방송국
제주 금성교회(064-799-0004)
주소: 제주 제주시 애월읍 금성안길3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그는 사사시대를 접고 왕정 시대를 여는 개척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백성들을 위해 전쟁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도 문제였지만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또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갖고 계시는 뜻과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폐하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들이 도착하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새가 삼마를 지나가게 하자 사무엘이 또 말했습니다.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새는 자신의 일곱 아들들 모두를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6~10절).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새에게는 모두 8명의 아들들과 2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이새는 순서에 따라 큰아들 엘리압을 사무엘에게 보였습니다. 엘리압은 아마도 왕이 될 만한 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새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아비나답, 삼마 그리고 나머지 네 명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새의 일곱 아들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들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왔느냐? 들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 센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 아니냐?’”(삼상 17:28).

다윗을 꾸짖은 엘리압은 외모는 훌륭했지만 모르지만 마음의 중심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쓰임 받는 그릇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가 아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한 그릇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요소를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에 있는 요소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과거나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을 잘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일상에 충성된 자를 부르신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 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였으며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 부어라’(11~12절).

여러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착하다는 것은 주인의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매 맺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너의 아들들이 다 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새가 “막내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막내가 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아셨습니다. 막내는 히브리어로 ‘하카톤’입니다.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같은 뉘앙스를 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집에 왔는데도 양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초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 왔습니

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 가면 뒤쫓아 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 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삼상 17:34~3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상의 삶에 충성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다윗은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았고, 아모스 선지자는 농사를 짓다가 부름을 받았고, 기도온은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말했던 것처럼 왕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물뱀돌 던지는 연습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결국 물뱀돌 던지는 선수가 되어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일상에서 해왔던 그 일이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작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연약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일상에 충성된 자를 부르십니다. 하는 일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그릇인지 질그릇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일을 잘 할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주어진 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않고, 불성실하지 않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날 이후로 여호와와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13절).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여호와와 영이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며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전혀 다른 새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삼상 10:6).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내용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사람이 됐고,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왜 사울 왕은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능력이 임했을 때 사울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목한 것이 사울 왕이 무너지게 된 이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임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었을 때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안목이나 아버지나 형제들의 안목, 사무엘의 안목에 의해서 왕으로 선출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안목에 의해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십니다. 진정한 은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주목해 주셨고, 사람들이 버린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일상의 삶에 충성된 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후에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이슈진단 동성애와 동성혼 개헌 쟁점화

교회는 동성애와 동성혼 개헌을 반대한다

개헌특위 국민대토론회 시작 ... 동성애와 동성혼 합헌 쟁점화
교회가 동성애 관련 개헌 반대 안하면 다음 세대가 위험하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에 돌입했다. 헌법 개정을 앞두고 '동성애 · 동성혼 합법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가 무엇이 문제이고, 교회와 크리스천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사단법인 크레도에서 이를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작년 말부터 시작된 국회 개헌특위 회의록을 보면 '개헌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헌법 개정 안 조항 하나, 단어 하나, 글자 하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5천여 개의 법령 중에서 최고의 효력을 가진 상위규범인 헌법을 30년 만에 개정하게 된 시점에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많다. 특히 1남 1녀의 결합에 의한 혼인은 인류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보편적 가치를 지닌 제도인데 사회의 근간이 되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뿌리를 흔드는 개헌안 내용들도 논의 중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동성애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개헌안 조항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현행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일남일녀(一男一女)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남녀의 결합만을 헌법상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동성애 옹호 측에서 '양성'의 '양'을 삭제함으로써 동성 간 혼인이 헌법적 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고, 이런 주장이 국회 개헌특위의 개정안에도 반영되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에는 차이가 없으며, 동성혼인의 법적 제도화를 염두에 둔 개헌안이 아니라면서 일반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구별해야 할 개념이다. '양성'은 생물학적 의미로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반면, '성'은 사회적 성(gender)을 지칭한다. 사회적 성(gender)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고난 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 뉴욕주에서는 30여 개의 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이 남녀 사이에 평등을 의미하는 용어인 반면, '성평등'은 스스로의 성 정체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따라서 성을 구분하고, 그 모든 성에 대해 같은 취급을 해야 함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동성애 내지 동성 간 성행위'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과 '동성 간 혼인의 법적·제도적 보장'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법적으로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형사 처벌한 적이 없으며,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당사자라도 부당하고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고용, 사회복지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남녀의 결합을 혼인과 가족제도의 근간으로 하고 있기에 일부일처(一夫一妻) 이외의 혼인이 허용되지 않을 뿐이며, 동성 간 혼인뿐만 아니라 일부다처, 다부일처,

및 해석집행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지난 몇 년간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되어온 '차별금지법안'에도 '성적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식의 선언적 의미가 아니다. 해당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헌법 제11조에 직접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의미를 갖는다.

헌법에 '성적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로 추가할 경우에 종국적으로는 이성 간 혼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동성 간 결합 제도나 동성 간 혼인이 합법화 되는 법적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동성애와 동성 혼인에 대한 건전한

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문화 한다는 것은 단순히 '차별금지'라는 의미를 넘어 동성애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동성애를 국가가 옳은 행위로 확인해 주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동성애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상 기관 승격 문제도 주목

법률상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상의 기관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상의 기관이 된다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성적지향 차별금지규정'이 우회적으로 헌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 가치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교수, 교사와 교직원 채용 시 지원 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제한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라고 결정한 바 있고,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구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이 조항이 군인 동성애자들의 평등권과 성적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성소수자 차별 반대 광고에 대해 청소년 선도와 미풍양속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광고 게재를 불허한 행위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시정권고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동성애가 금지되거나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거꾸로 건강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추구하기 위한 건전한 토론을 막는 개헌이나 법률 제정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 초래

법적인 문제 외에도 당장 다가온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 감염이 보고되기 전인 1978년에 이루어진 연구결과에 따르면, 백인 남성 동성애자(게이)의 75%가 평생 동안 100명 이상의 남성 성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5%

“헌법에 양성평등이 삭제되고,
성적지향이 특별보호 되는 사유로 추가되며,
인권위원회가 헌법상 기구로 승격될 경우
동성애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기회가 막히고 만다.”

중혼적 사실혼 등도 법적인 혼인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동성 간 혼인이 허용될 경우 남남·여여의 결합뿐만 아니라 삼혼·사혼 등 각종 중혼·난혼·잡혼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하는 것도 문제

현행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하는 개헌안도 큰 문제다. 평등권 조항에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이 허용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차별 금지 사유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권력 작용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성적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될 경우 하위법령 제정

비판, 논의, 토론이 금지되고, 나아가 이러한 표현은 혐오 표현으로 간주되어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동성애자에 대한 전환치료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실제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인권위원회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동성애 측에 편향된 기준을 가지고, 종교의 자유, 대학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판단을 내려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에서는 미션스쿨에서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라는 표현에 대하여 학교당국의 게시물을 '증오선동의 혐오표현' 또는 '차별'이라고 설명했고,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 판단 및 의학적·사회적 비판을 '혐오 표현'으로 취급하였다. 이와 같이 '성적지향'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게이 퍼레이드.

의 남성 동성애자들의 구성 비율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5%는 100명에서 249명의 남성의 성 파트너를, 17%는 250명에서 499명의 남성 성 파트너를, 15%는 500명에서 999명의 남성 성 파트너를, 28%는 1,000명 이상의 남성 성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발표된 미국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경로가 '남성 간 성관계'인 경우가 6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같은 해 13~24세의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84%가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이었다.

또한 2014년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의 조사에 따르면 서부·중부 유럽과 북미 에이즈 신규 감염자 중 남성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인 남성이 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밝힌 200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우리나라 HIV 신규 감염 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 신규 감염환자가 약 20배 증가했다. 청소년 HIV 감염환자의 급증은 청소년 간의 동성애 확산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에이즈 환자 진료에 매년 800억 원 이상을 정부 및 건강보험 재정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전액 국비로 치료해주고 있다. 2006년부터 10년간 쏟아 부은 국가재정만 5천억 원에 육박할 정도이다.

동성혼 인정,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추세가 아니다. 오늘날 전 세계 약 76개국에서 헌법과 법률로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현재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는 26개국에 불과하다. 2015년 3월 기준 전 세계 193개 국가 중에 47개국이 혼인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항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동성혼 및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재논의가 진행 중이다.

스웨덴 총리는 동성혼의 주례를 거부하는 목사는 목사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기독일보, 2017년 6월 30일).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8세에 성전환과 동성혼, 11세에 자위행위, 12세에 항문성교와 구강성교를 가르친다(Ontario's Radical Sex Ed Curriculum, Campaign Life).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

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영국에서는 노랑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공공질서법 제5조(소란죄) 위반으로 경찰이 설교자를 체포하고 있다. 또한 2008년에 공공질서법에 신설된 동성애 증오 범죄(최고 7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따라 동성애, 동성혼, 성전환과 관련된 상해,

현행	개정 시안 (논의안)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	모든 사람은 ... (성)평등에 기초하여 혼인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 ...
제11조 1항 ...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 성별·종교·인종·언어·출신지역·장애·나이·성적지향 ...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성평등은 고용, 노동, 임금,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정책, 교육, 조사 및 규제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



육권을 주정부가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정부가 자녀가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이나 성 표현(gender expression)을 선택하는 것을 거부하는 부모에게서 자녀의 양육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LifeSite, 2017년 6월 1일). 미국 뉴욕시와 위싱턴주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외형상 남성인 자도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단순한 비판, 반대, 혐오 표현을 한 경우까지도 형사 처벌된다.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성적 지향/성전환 관련 '증오 표현'으로 처벌된 경우는 약 3,700건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1990년~2017년까지 28개국에서 동성혼이 합법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성혼의 명시적 금지조항을 헌법에 추가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파나마의 경우에는

헌법에 혼인이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제정을 통해 더 명확히 동성혼을 금지하였고,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헌법에는 혼인에 대한 정의가 없고, 민법에만 혼인이 1남 1녀의 결합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 5월 헌법개정위원회가 헌법에 혼인을 1남 1녀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곧 상원에서 통과되면 국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 세대를 집어 삼킬지도 모른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동성혼 허용법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는 등 동성혼 및 성적지향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동성혼과 동성애 관련 개헌안에 반대하는 서명을 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미워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다. 지난 7월 23일자 온누리신문에 실린 '탈동성애자의 고백' 간증처럼 공동체의 애정과 관심 가운데 동성애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는 헌법에 양성평등이 삭제되고, 성적지향이 특별 보호되는 사유로 추가되며, 인권위원회가 헌법상 기구로 승격될 경우 동성애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기회가 막히고 만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법적인 보장 특히 헌법상의 보장은 파급력이 매우 크다. 동성애가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장려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아직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30년 만의 개헌 물살이 미래세대를 집어삼키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사단법인 크레도는 법의 시각으로 사회 각 이슈들을 창의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

People

내가 만난 하나님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삶의 기초가 되었고, 꿈을 꾸게 했으며, 막연했던 꿈을 구체화시키는 원동력이었다. 유철준 집사(서초B공동체)는 이규식 선교사와 함께 태국 방라뭉 지역에서 ‘글로벌비전센터’를 만들어가고 있다. 글로벌비전센터에는 교회, 대안학교, 기숙사, 유치원이 있다. 초·중·고등학교, 의료선교센터, 선교센터도 건립해 갈 예정이다. 글로벌비전(glovision)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Global Vision of God)의 약어다. 오직 영혼 구원이 목적이자 비전이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참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삶과 꿈과 비전이 되었다



태국에서 이규식 선교사와 함께 ‘글로벌비전센터’를 만들어가고 있는 유철준 집사.

오늘에 이르기까지 술한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유철준 집사도 술한 역경을 겪으면서 단단해졌다. 중견 기업 부회장이던 그는 30여년 경력의 전직 외교관이다. 일본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덕분에 일본, 유럽 등지에서 주로 활동했다. 어느 날 그가 태국대사관으로 발령이 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때가 1996년이었다. 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졌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의 아픔과 고충을 알게 됐다. 자녀교육 문제를 가장 힘들어 했다.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을뿐더러 오지선교를 가면 교육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유 집사는 선교사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태국 근무 중 섬겼던 임마누엘선교회를 담당했던 이규식 선교사도 유 집사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땅만 있으면 학교를 지어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선교사님 한 명당 자녀가 둘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우리가 선교사 자녀 50명을 돌보면 25명의 선교사가 오지선교를 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 한 분이 100명을 구원한다고 가정하면 선교사 25명이면 2,500명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보석보다 값진 신앙 물려준 우리 어머니

보석보다 값진 그의 신앙은 어머니가 물려주셨다. 유철준 집사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에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 가르침 덕분에 유 집사에게는 베푸는 삶이 몸에 배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유 집사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전철을 타고 창경궁을 지나고 있는데 한 꼬마가 칭얼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배가 고파서나 무엇이든지 도움이 필요해 보였다. 그 순간 어린 유 집사가 가지고 있던 동전지갑을 털어 울고 있는 꼬마의 손에 쥐어주고 다시 자리에 와서 앉았다. 유 집사의 나이가 고작 6살이었다. 그때 유 집사의 어머니가 그의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우리 철준이 참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유 집사의 삶이 되었다. 60대 초반인 그는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그렇게 좋고, 기쁨 수가 없다. 또 유 집사는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할 때부터 매일 말씀 한 구절씩 암송했다. 주일 아침에는 일주일 동안 외운 말씀을 어머니께 암송해드렸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10원을 주면서 “5원은 하나님 것, 5원은 철준이 것”이라 했다. 절대 하나님의 것을 네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셨다.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기초가 유 집사 신앙에 밑거름이 되었다. 그 신앙이 삶의 지표가 되었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했다. 글로벌비전센터는 그 열매 중 하나다.

10년 만에 이루는 꿈 ‘글로벌비전센터’

글로벌비전센터의 꿈은 1997년 처음 시작됐

다. 꿈은 꾸었지만 그 방법이 구체적이지는 않았다. 당장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2000년 임기가 만료돼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짓겠다는 꿈을 뒤로 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에서 청와대,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냈다. 2007년부터는 민간 기업에서 CEO로 일하기 시작했다. 태국에서 꾸던 꿈은 잊고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잊지 않으셨다. 2007년 5월 어느 날 이규식 선교사에게 국제 전화가 왔다.

“좋은 땅이 있어요. 19,200평이나 되는데 땅값이 시세의 삼분의 일밖에 안 돼요.”

이 선교사에게 그 땅을 우리가 잡자고 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후회했다. 당시 5~6억이나 되는 큰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해 8월 태국을 향하면서 유 집사는 이 선교사에게 땅 매입을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말한 땅에 도착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눈을 뜨자 황량한 땅에 선명한 무지개가 펼쳐져 있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이 있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 선교사님도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 저와 똑같은 무지개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2007년부터 글로벌비전센터를 짓겠다는 꿈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꿈을 꾸지 딱 10년 만이었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짓겠다고 생각만 했던 꿈이 실현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꿈도 생겼다. 동남아시아 선교 전진기지가 그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있

는 수많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영성훈련을 할 수 있기를 꿈꿨다. 글로벌비전(glovision)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Global Vision of God)의 약어다. 목표는 오직 영혼구원이다.

“하나님께 3년 안에 100억 모금 받아서 교회, 학교, 기숙사, 유치원, 의료선교센터, 선교센터를 올려드리겠다고 자신만만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터무니없는 교만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원대한 계획은 세웠지만 처음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동역의 손길이 나오지 않았다. 여러 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후원이 매우 미미했다. 땅 주인에게 무수한 독촉을 당하고 계약 위반으로 고소장이 날아오기도 했다. 땅 값을 모두 갚는 데만 5년이 걸렸다. 사역의 진척이 없으면서 유 집사와 이규식 선교사의 심신도 지쳐갔다. 사역에 대한 회의감마저 밀려왔다. 비전도 흔들렸다. 모든 상황이 어두운 밤처럼 캄캄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 밖에 없었다.

“이규식 선교사는 태국에서 40일 금식기도를, 저는 한국에서 40일 새벽기도를 드렸어요. 그동안 우리 힘으로, 우리 인맥으로, 우리 계획대로만 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자 유 집사와 이 선교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비전도 더욱 뚜렷해졌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후원의 손길을 붙여주셨다. 공사를 중단하지 않도록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셨다. 그렇게 지난 10년간 태국 방라뭉 지역에 새빛교회와 영세민 자녀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호산나 대안학교, 학생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니엘 기숙사, 유치원을 완공했다. 초·중·고등학교, 의료선교센터, 선교센터 건립도 추진해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서초B공동체, CMN, 안산M센터에서 총 63명이 글로벌비전센터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유 집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지난 10년간 황무지에 글로벌비전센터를 세워 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감동과 은혜가 흘러넘치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건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의구심이나 불안함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이것이 지난 10년간 연단 받으며 깨달은 것이예요.”

후원: 우리은행 1002-128-958692 이규식

치킨캠프를 아시나요?

치킨도 먹고, 사랑도 나누고, 복음도 전하고

치킨은 맛만 좋은 것이 아니다. 사랑도 나누고, 복음도 전하는 탁월한 전도 도구이기도 하다. 경기도 동두천시 기독교청년연합 소속 청년들과 온누리교회 여호수아공동체 청년들이 개최한 치킨캠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치킨캠프는 일 년에 한 번씩 배고픈 청소년, 사랑을 갈망하는 청소년, 복음을 소망하는 청소년들과 치킨을 먹으면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경기도 동두천시 언덕위의신흥교회, 동두천시 기독교청년연합, 온누리교회 여호수아공동체 등이 협력하고 있다. 치킨캠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청소년들은 또 다시 올 수밖에 없다. 치킨이 좋아서도 오지만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온기를 선물받기 때문이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 멘토와 멘티가 함께 게임을 하고 있다.



▲ 치킨캠프에 참석한 청소년이 랩(Rap) 반에서 자신의 신앙고백이 담긴 가사를 쓰고 있다.

동두천시는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해 있다. 도심 속으로 들어갈수록 우거진 녹음이 장관이다. 도심 속에서 대자연을 만난 착각이 들 정도다. 동두천시 언덕위의신흥교회를 중심으로 뒤쪽에는 마차산, 앞쪽에는 작은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소요산이 펼쳐져 있었다. 소요산 앞자락에 내려앉은 구름은 한 폭의 그림 같다. 동두천시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6.25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66년 동안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동두천시 일부 지역에는 기지촌 문화가 발달했다. 처음에는 미군을 상대로 생업을 이어가며 많은 부를 쌓기도 했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동두천시의 어두운 단면이 또 하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조(組)이혼율(전 명당 이혼 건수)이 타 지역(전국 평균 2.1%)과 비교해서 1.6배나 높다. 그만큼 가정의 위기와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치킨캠프는 방황하는 거리의 청소년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작됐다. 2011년부터 7년째 이어오고 있다. 7년 전부터 동두천 기독교청년연합 소속 청년들이 길거리예배(이하 길예배)를 드렸다. 길예배는 동두천 기독교청년연합회에서 사역하던 김명득 목사(언덕위의신흥교회)를 중심으로 동두천시 교회 청년들이 매주 주일 저녁마다 공원, 지하철역 등지를 다니면서 드리는 예배다. 거리에서 만난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전도 하는 것이 목적이다.

거리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삶은 매우 심각

했다. 공중화장실에서 먹고 자거나 본드를 흡입하는 청소년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들을 품고 섬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당장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기회가 찾아왔다. 길예배 멤버인 김진령 자매가 예배드리려고 교회에 왔다가 잘 곳을 찾아 온 여자 청소년 두 명을 만났다.

“평소에 어디서 자냐고 물어보니까 병원 보일러실, 장례식장 등에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처럼 날마다 배회하며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몇 십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김명득 목사가 치킨캠프를 처음 제안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김인철 형제가 연말에 받은 상여금을 포함한 자신의 월급 전액 기부하면서 제1회 치킨캠프가 시작됐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마음껏 먹이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다. 처음에는 치킨캠프를 한 번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청소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

“치킨캠프 또 언제 해요?”

단순히 치킨만 좋아서가 아니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온기와 사랑을 맛보고 또 경험하고 싶은 거였다. 날마다 치킨캠프를 열어서 청소년들을 품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재정이 턱없이 부족했다. 치킨캠프 한번 하는데 치킨 값만 150만 원 이상이 든다. 재원마련을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반가운 제안을 했다. 매년 2천만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다. 정말 달콤한 제안이었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재원을 지원해주는 대신 치킨캠프

에서 종교색채를 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원방(遠方)에서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 그 힘들던 시절 하나님께서 길예배 멤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원방(遠方)에서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원방에서 온 사람들은 바로 온누리교회 여호수아공동체 청년들이었다. 2013년 프렙전도(거지전도)를 갔던 여호수아공동체 청년들이 동두천시 언덕위의신흥교회를 방문하면서 치킨캠프를 함께 섬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섬기기로 했었다. 그런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1년에 한 번 만나서 변화시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여호수아공동체 박재현 형제는 치킨캠프에 처음 참석한 날을 이렇게 기억했다.

“치킨캠프에 온 청소년들의 머리카락 색깔이 무지개더러고요. 빨주노초파남보가 다 있더라고요. 한 여자 청소년의 앞니는 짙은 본드 흡입으로 녹고 없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청소년들을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 그래서 여호수아공동체는 매달 한 번씩 동두천시를 찾아가기로 했다. 한 달은 동두천시 기독교청년연합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한 달은 청소년들을 만나 위심캠프를 하고 있다. 치킨캠프는 일 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다. 여호수아공동체는 청소년들에게 일대일 멘토링도 실시하고 있다. 일대일 멘토링은 동두천

시 기독교청년연합의 오랜 기도제목이었다.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동두천시 청소년들에게 일대일 멘토링을 해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치킨캠프를 처음 개최할 때부터 기도했거든요. 일대일 멘토링을 시작하면서부터 청소년들의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청소년들의 삶이 변화되고, 살아나고

치킨캠프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의 삶이 변화되고, 살아나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언덕위의신흥교회에서 개최된 제12회 치킨캠프에서 청소년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킨캠프에 참여한 34명의 청소년들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마음도 뜨거웠다. 이번 캠프에서는 동두천 크리스천 청년연합이 전체 진행과 찬양을, 여호수아공동체는 멘토 역할과 매점운영을 책임졌다. 특히 일대일 멘토링이 청소년들에게 호응을 받았고, 매점팀이 준비한 따끈한 회오리 핫도그, 달콤한 파인애플 쪄치, 시원한 팔빙수 등도 큰 인기를 끌었다.

캠프 이틀날에는 문화선교팀 히스팝(Hispop)이 함께하면서 열기가 고조됐다. 멘토와 멘티가 함께 스트릿댄스(Street dance), 커버댄스(Cover dance), 비보잉(B-boying), 랩(Rap)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세족식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치킨타임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미나(가명)는 세족식에서 가려진 어깨를 들썩이며 하염없이 눈물 흘렸다.

“마치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포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이번 치킨캠프에서 청소년 2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치킨캠프에 처음 참석한 태주(가명)는 랩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

“힘들고 외로운 하루하루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져만 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처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지 신을 믿지 않던 나에겐 큰 이변이 일어났지... Say Jesus God is alive.”

치킨캠프 덕분에 청소년을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섬김이 빛을 발했다. 비행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마저 바뀌었다. 장영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치킨캠프를 통해 방황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밝아진 것을 본다”면서 “치킨캠프에 함께하는 크리스천 청년들 모두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문의: 권민철 팀장(010-2997-1196)



크리스천과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몰라보게 좋아지는 ‘19가지 기술’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뇌기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없고 중요한 것도 없는데 말이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떨 때는 교회에서의 인간관계가 사회에서의 관계보다 어렵게 느껴진다.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방법을 말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인간관계를 잘 맺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시작은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갈등을 빚는지를 알아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직장에 죽는 것보다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매일 봐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회사원).

“평소 다정하던 단짝이 갑자기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이상한 건지, 그 친구가 이상한 건지...”(고3학생).

“인간관계 때문에 너네임을 수차례 변경하고, 계정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트위터 이용자).

“사람들과의 인연을 다 끊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살고 싶어요.”(아이디 my**).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은 대상, 장소, 이유, 모양을 막론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된다. 다만 인간관계를 잘 못 맺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그렇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관계 회복의 지름길이다. 조직이 크든 작든, 사람이 많은 적든 인간관계 문제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코시 목사가 고안한 19가지 관계기술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명사(名士)들이 남긴 조언들이 수도룩하다.

“사람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로서만 측정될 수 있다.”(니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많은 사람과 사귄 줄 알아야 한다.”(루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당신을 만나고 나서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신의 은총을 당신의 행동으로 보여주라.

친절한 얼굴, 친절한 눈, 친절한 미소로 사람을 대하라.”(마더 테레사).

여기 맹점이 또 하나 있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도식화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사연마다 갈등의 모양과 세기가 다르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인간관계 방법으로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인간관계가 몰라보게 좋아지는 19가지 기술’은 이러한 단점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필요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19가지 관계기술은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시에 회복하는 기술이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상처를 예방하고, 치유도 할 수 있다.

관계훈련 전문가 크리스 코시 목사가 고안한 방법이다. 크리스 코시 목사가 정의한 관계기

술은 삶과 시간, 분위기, 가치, 태도, 행동, 이해,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도록 돕는 종합적 능력을 의미한다. 그 능력을 19가지 뇌기술로 개념화했다. 그렇다고 19가지나 되는 관계기술을 순서대로 익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코시 목사가 제시한 19가지 뇌기술은 1번부터 19번까지 단계별로 익히고 외우는 과정이 아니다. 쉽게 훈련할 수 있는 뇌기술(1번, 2번, 5번)부터 고난도 뇌기술(13번, 15번, 16번, 19번 등)을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면 된다. 19가지 관계기술을 반복해서 몸에 익히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다.

코시 목사의 저서 <관계의 기술>을 번역한 손정훈 목사(마포공동체)는 “19가지 뇌기술은 단순히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기술이 아니다. 각기 다른 관계 기술을 보유한 (교회)공동체 내 성숙한 사람들의 코이노니아(나눔)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타인과 공유하고, 아픔을 공감함으로써 서로를 성숙시키고 성화(聖化)시키는 여정”이라고 소개했다.

19가지 관계기술 익히고 실천하기

19가지 관계기술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 상황에서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19가지 관계기술을 모두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가정과 직장, 교회, 모임 등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정리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뇌기술

- “**감사를 표현하라(4번)**”
감사의 수위가 높은 감정 상태는 뇌와 신경계가 건강하게 균형 잡힌 상태와 거의 일치한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감사의 감정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면 불쾌한 상태와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이는 마치 ‘모유 사출 반사’ (수유할 때 엄마와 아기 모두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와 같다.
- ▶ **대상** : 잘못된 문제만 발견하는 사람,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비판적인 사람.
 - ▶ **방법** : 1. 누구 혹은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싶은지 나누어 보라.
2.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사람, 하나님을 떠올려라.
3. 당신의 몸이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관찰하고 일기를 써라.
 - ▶ **효과** : 감사한 것들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소속감이 고취되고, 스트레스가 만족감으로 바뀐다.
 - ▶ **적용을 위한 제언** : 건강한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라. 더 많은 에너지가 생기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뇌기술

- “**기쁨을 나눠라(1번)**”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도를 해도 기쁨을 나눌 수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 ▶ **대상** : 고통이나 부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
 - ▶ **방법** : 1. 표정과 목소리 톤(비언어적 표현)으로 기쁨을 증폭시켜라.
2. “함께해서 기뻐요”라고 메시지를 전하라.
 - ▶ **효과** :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찾게 된다.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뇌도 건강해진다.
 - ▶ **적용을 위한 제언** : “당신을 만나 반갑다”며 진정한 기쁨을 전하자. 기쁨이 넘쳤던 순간을 떠올려보고, 그 순간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하자.

#교사와 부모에게 필요한 뇌기술

- “**둘 사이에 유대를 형성하고 애착을 동기화하라(3번)**”
사람은 더욱 가깝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사고 공유하는 상태’가 되면 만족감을 느낀다.
- ▶ **대상** : 외롭다고 느끼고, 사람들을 회피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경계하는 사람.
 - ▶ **방법** : 1.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지, 혼자 있기를 바라는지를 파악하라.
2. 진정으로 원하는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라.
3. 사람들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
 - ▶ **효과** : 인간관계에 극적인 변화가 생기는 일은 별로 없지만 인간관계 패턴을 알게 되면 편안함과 자신감을 느끼게 된다.

#비전과 꿈을 찾는 청년에게 필요한 뇌기술

- “**고통으로부터 마음의 핵심가치를 파악하라(6번)**”
애정이 깊으면 상처도 깊기 마련이다. 무엇인가 유난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사람)에 대해 특별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핵심가치가 도전받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
- ▶ **대상** : 일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힘들게 일하지만 어떤 가치도 얻지 못하는 사람.
 - ▶ **방법** : 1. 지인 세 명을 찾아가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2. 자신에게 어떤 문제 패턴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 ▶ **효과** : 고통과 고난 뒤에 구원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고통이 말하는 가치와 가능성을 깨닫게 된다.
 - ▶ **적용을 위한 제언** :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일수록 많은 고통을 유발한다. 그것을 집이 아니라 보물로 여겨라.

#순장과 설교자에게 필요한 뇌기술

- “**비언어적 이야기를 나누라(10번)**”
관계를 강화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세대나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 데에는 비언어적 의사소

통이 언어(말)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

- ▶ **대상** :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느끼는 사람.
- ▶ **방법** : 1. 친구한 명을 찾아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비언어적 대화를 나눠라.
2. 그 친구가 비언어적인 대화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알아보자.
3. 비언어적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를 사용해서 다시 전달해보자.
- ▶ **효과** :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표현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다. 사람들의 얼굴과 비언어적 메시지를 보면 그가 어떤 기분인지를 알아챌 수 있게 된다.

#리더십에게 필요한 뇌기술

- “**여섯 가지 감정에서 기쁨으로 돌아가라(11번)**”
여섯 가지 감정(분노, 두려움, 슬픔, 수치심, 혐오감, 절망감)은 부정적이고 불쾌한 감정이다. 우리 뇌는 불쾌한 감정을 쉽게 느끼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진정시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 ▶ **대상** : 여섯 가지 감정을 회피하거나 이 감정을 느끼게 되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
 - ▶ **방법** : 1. 여섯 가지 감정에 대한 11번 뇌기술 능력을 1~5의 척도로 평가한다.
2. 각각의 감정을 경험했을 때의 상황을 기억해보라.
3.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거나 방해하는 요소를 살펴라.
4. 관찰한 내용을 친구와 공유한다.
 - ▶ **효과** : 일이 잘못 되었을 때도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어떤 문제들이 스스로를 괴롭히더라도 빠르게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다.
 - ▶ **적용을 위한 제언** : 분노한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주기보다 자기 의견을 말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려 드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지뢰밭 같기 때문에 다루는 방법을 훈련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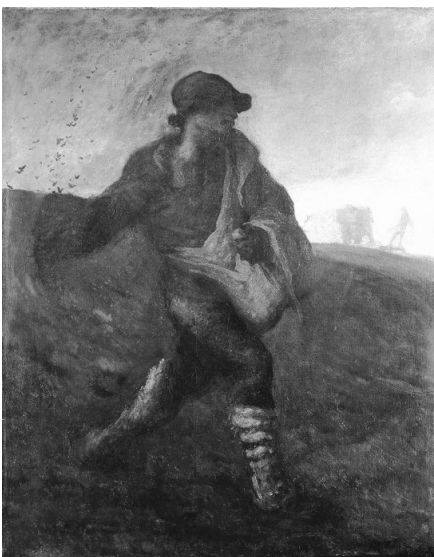
- “**여섯 가지 큰 감정 가운데서도 자기답게 행동하라(12번)**”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자기답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분노, 두려움, 슬픔, 수치심, 혐오감, 절망감이 들 때 자칫 소중한 관계에 손상을 입히거나 관계를 회피할 수 있는데 이는 훈련받지 못했거나 나쁜 본보기를 봤기 때문이다.

- ▶ **대상** : 화가 났을 때 일관성이 사라지고 유연성을 잃어버리는 사람, 감정에 따라 성격이 바뀌는 사람,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려고 애쓰는 사람.
- ▶ **방법** : 1. 화가 났을 때 표현하고 싶은 특성 5가지를 열거해 보자.
2.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호자, 가해자, 피해자’가 되어보자.
- ▶ **효과** : 화가 났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 지를 기억하게 된다. 행복, 분노, 두려움, 슬픔, 혐오, 부끄러움, 절망을 느낄 때도 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다.
- ▶ **적용을 위한 제언** : 본래의 창조된 모습을 찾는다면 화가 나든 기쁨으로 가득 차든 상관없이 늘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 “**복합적 감정을 처리하고 기쁨을 회복하라(19번)**”
이 기술은 19가지 뇌기술 중에서 최고난도 기술이다. 19번 뇌기술을 훈련하려면 1번, 2번, 11번 뇌기술과 같은 기본적인 기술들이 밑받침되어야 한다. 수치심에 분노가 섞이면 굴욕감이 짙고, 두려움에 절망감이 섞이면 공포가 짙는다. 이러한 복합적 감정은 사람을 고갈시키거나 진정시키기 어렵게 만든다. 19번 뇌기술은 복합적인 감정들로부터 기쁨을 회복하고 나답게 행동하도록 돕는다.

- ▶ **대상** : 큰 감정을 회피하는 사람, 공포나 굴욕감을 느끼면 도망치거나 다른 사람들을 채찍질하는 사람.
- ▶ **방법** : 1. 굴욕감(혹은 공포감)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적어보자.
2. 그 답변을 주변 사람과 공유해 보라.
3. 19번 뇌기술을 훈련하는 모습을 친구에게 관찰해 달라고 부탁하라.
4. 19번 뇌기술을 잘 훈련 받은 멘토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 **효과** : 다른 사람이 공포심과 굴욕감을 느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큰 감정과 씨름하는 누군가를 매우 잘 위로해 줄 수 있다.
- ▶ **적용을 위한 제언** : 삶면서 겪는 복합적인 상처들은 다양한 모양을 남긴다. 여러 뇌기술을 조합해서 조화롭게 사용하면 그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

최정주 권사의 말씀이 들리는 ‘예술 산책’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 (1850년).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은 씨 뿌리는 농부의 활기찬 모습을 담고 있다. 19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화가 밀레는 풍경화를 즐겨 그린 바르비종파(barbizon)를 대표하는 화가이다. 그가 그린 풍경화에는 늘 농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곤 한다. ‘씨 뿌리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는 농부의 모습을 담고 있다. 밀레가 농민의 모습 못지않게 그림에 담아내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의 친구이자 그림 판매업자였던 알프레드 상시에(Alfred Sensier)는 자신의 책에서 “밀레는 늘 성경과 책에 충실한 화가였다”고 말했다.

그림 속 남루한 차림의 농부의 씨앗주머니를 한번 살펴보자. 농부가 왼쪽 어깨에 둘러맨 씨앗주머니 입구를 손으로 꼭 부여잡고 있다. 씨앗을 한 톨이라도 흘리지 않으려는 농부의 정성과 간절함이 느껴진다. 농부의 오른손은 앞으로 리드미컬하게 뻗어나가며 힘차게 씨를 뿌리는 모습을 짐작케 한다. 화면 전체를 짙게 채우는 농부의 모습은 밀레가 보는 그 시대의 영웅이다. 많은 화가들이 그려낸 영웅들이 왕과 권력자였다면, 밀레는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그렸다.

그림 왼편 뒤쪽 멀리서 여러 마리의 새들이 떼를 지어 날고 있다. 새들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쫓아 먹기 위해 매우 낮게 날고 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마 13:3-4)라고 하신 성경말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농부가 부지런히 뿌린 그 많은 씨앗들은 모두 어떻게 될까? 그림 속 농부의 발밑에 큰 돌들이 보인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마 13:5-6)라고 하신 성경말씀처럼, 이토록 수고하였지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말라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농부가 정성들여 뿌린 많은 씨앗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만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마음이 가벼워지며 청명한 기분이 드는 ‘라

데츠키 행진곡’은 동이 터오는 발에 나가 씨를 뿌리는 농부의 힘찬 발걸음과 잘 어울린다. 이 곡은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오스트리아의 장군 라데츠키의 이름을 따서 작곡한 행진곡이다.

밀레의 그림을 보면서 라데츠키 행진곡에 맞추어 4박자 지휘를 하다보면 그 지휘하는 손 모양이 신나게 씨를 뿌리는 농부의 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마치 여러 발을 돌아다니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곤 한다. 새 아침을 맞으며 벅찬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희망찬 걸음걸이와 같은 라데츠키 행진곡은 일하는 자의 순수한 행복과 행동하는 자의 경쾌한 마음을 음악으로 바꾸어 놓은 것 같다. 이 그림과 함께 라데츠키 행진곡을 감상하면서 경쾌한 리듬이 마음 깊숙이 전달되어 청명해지는 기분을 경험해 보기를 권한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깨닫는다. 바로 ‘좋은 땅’과 ‘좋은 씨’이다.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와 ‘좋은 땅’은 모두 우리의 마음 상태이다. 예수님은 사탄에 노출된 마음은 길가,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마음은 돌밭, 유혹과 욕심이 많아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태를 가시떨기,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마음 상태는 좋은 땅으로 비유하셨다. 오늘날도 큐티와 성경통독과 주일 설교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나의 마음 밭은 일정하지 않고 수시로 변한다. 사탄에게 노출되어 악

한 마음 밭일 때도, 좋은 말씀을 듣고도 갈팡질팡 방황하는 밭일 때도, 여러 유혹에 흔들리고 욕심까지 넘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탐욕스런 밭일 때도 있다. 이렇게 내 마음 밭이 혼란스러울 때는 조용히 기도를 드린다.

“주님, 제 마음 밭이 혼란스럽습니다. 제 마음이 씨 뿌리기 좋은 깨끗하고 정리되고 준비된 밭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 밭에 어떤 씨앗이 떨어지고 있을까? 미움은 미움을, 시기기는 시기기를, 분노는 분노를 맺을 뿐이다. 아무리 좋은 땅도 나쁜 씨앗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씨가 아닌 주님의 씨를 빨리 받는 것이 아닐까. 사랑이 사랑을, 긍휼이 긍휼을, 양선이 양선을, 희락이 희락을, 인애가 인애를 맺도록 말이다. “주님, 세상의 씨앗이 아닌 주님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 삶에 세상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라데츠키 행진곡과 ‘씨 뿌리는 사람’에서 오랫동안 개량한 좋은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본다. ‘나는 과연 좋은 흙과 거름으로 밭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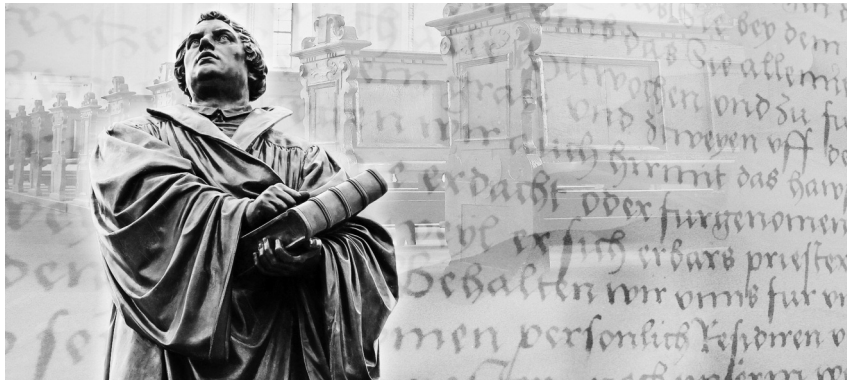
최정주 권사(한국예술융합교육학회 회장)

차세대에게 들려주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0년 전 시대를 뒤바꾼 위대한 혁명이 일어났어요. 16세기 유럽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던 인문주의 사상과 종교 기득권 세력이 누리고 있던 총체적 부조리에 저항해서 일어난 진리의 몸부림이었어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궁정교회 정문에 붙은 ‘95개조 반박문’으로 시작해 전 세계로 파급되었던 ‘종교개혁’이 바로 그것이에요.

독일의 마틴 루터, 스위스의 츠빙글리, 영국의 존 웨슬리, 프랑스의 칼빈 등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위대한 혁명을 일으켰어요. 신약성경에서 세 번(롬 1:17, 갈 3:11, 히 10:38) 나타나는 이 구절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 2:4)는 말씀에서 인용한 구절이에요.

하박국서에는 서로 대비되는 존재가 나란히 등장해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존재’예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과 비교되는 그들은 당시 중동 지역 전체를 점령해 나가던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였어요. 하박국은 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 레바논을 점령하고 계속 진군해서 유다 지역까지 내려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암담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품은 한 가지 질문은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조용히 바라보고 있느냐’(함 1:13)는 것이었어요. 죄 많은



500년 전 믿음으로 돌이킬 것을 주장한 마틴 루터.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함 1:12) 바벨론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은 바벨론보다 더 의로운 존재인데 악인인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니 하박국 입장에서는 모순 그 자체였던 거지요.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묵시(默視)로 응답을 주셨어요. 악인들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현재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한 바벨론이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온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공평함을 의심하는 세상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함 2:14)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너와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있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함 2:20)고 선언하며 응답을 끝맺으세요. 그럼 이 비밀을 알게 된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기다려야 해요.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함 2:3).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 이 땅의 모순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따라서 종말이 속히 다가와야 마땅하다는 사실도 잘 아세요. 그럼에도 악인들 역시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한 명의 악인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기에 종말을 지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부흥’이란 단어를 사람이 많아지거나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

하지만 이 단어는 ‘깨끗하게 교정하다’, ‘악을 제거하다’는 뜻을 지녔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딱 한번 하박국서에 나와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함 3:2).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고 사람이 늘게 해달라고 떼쓴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들어 쓰러서라도 빨리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해 주시되, 우리가 벌을 받고 있을 때라도 장차 임할 구원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대한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지요.

“무화과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맥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 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함 3:17~18).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것이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예요. 그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벧 1:6).



곽상학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특별기고

통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교회가 정치적, 사회적 교류의 매개 되어야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도 교회가 정치적, 사회적 교류의 매개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황의서 장로가 독일 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전망하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1984년 동독 정부가 베를린장벽 안에 있던 화해교회를 폭파시켰다. 경계선 안에 있는 화해교회를 서독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표현했고, 이 표현은 동독 정부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다. 교회를 폭파하기 전 동독은 서베를린에 살고 있는 옛 화해교회 성도들과 상의 했다. 서베를린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빈 건물로 서있던 화해교회 폭파에 동의하였다. 그들은 통일을 염원하고 있었지만 5년 후에 실현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화해교회는 독일 통일 이후 다시 제자리에 세워졌다.

1989년 10월 9일 라이프치히에서 평화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사회주의 개혁을 요구했지만 통일을 외치지 않았다. 동독의 많은 지식인과 지도자들은 동독을 사회주의 종주국으로 인식했고, 사회주의를 잘 실천하면 모든 사회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다. 독일 통일에 대한 구호는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후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흡수 통일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자 동독의 많은 지식인들과 기독교 세력들은 ‘조국을 위하여’라는 성명을 내고 사회주의의 수호와 단계적 통일을 주장했다. 처음에는 이들의 주장이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흡수 통일로 기울어졌다. 동독 사람들은 40년간 외쳐오던 사회주의 우월성이 허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진리의 음성에 순종했다.

동독에서의 평화적 시위는 그들이 처음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사회개혁을 주장했는데 통일이 찾아왔다. 그래서 독일의 통일은 인간이 의도한 작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독일 통일을 주장했던 폴 수상 역시 통일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강조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수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은 “각각 자기의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독일 사람들이 통일이라는 상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만큼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수고도 있었다. 빌리 브란트 수상이



성 니콜라이교회 앞 광장(오른쪽 건물이 성 니콜라이교회).

제안한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통일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고, 교회들이 접촉에 앞장섰다. 서독 교회들은 동독 교회들과 일대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그들을 도와주었다. 동독 교회들에게 물품을 보내주고, 방문도 하고, 정보도 교환했다. 동독 교회는 서독의 문화와 정보를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했다. 동독과 서독 간 격차가 심해질수록 동독 주민들은 교회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교회에서는 동독 지식인들이 모임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보도 나누었으며, 서독에서 찾아온 방문객과 교류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사회주의로 인해 죽어가는 동독 사회에 생명수를 흘려 보내고 있었다.

서독 정부는 동독 정부에 직접적으로 현금 주는 일을 피했다. 정치범을 사오면서 서독 정부는 그 돈을 교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불했다. 동베를린의 공산당 책임자 샤보스키가 자유여행 허가를 발표하기 며칠 전에 그는 동독 목사의 주선으로 서베를린 시장 뎀퍼를 만났다. 자유여행 정책을 뎀퍼에게 알려주었고, 서베를린은 필요한 준비를 했다. 이처럼 교회와 목사들이 정부 관계자들의 교류 창구 역할을 했다.

동독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들은 1964년부터 군 입대를 거부하고 공병으로 지원했다. 공병들은 도로건설과 같은 현장에 투입되었고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했다. 이들은 1980년부터 미가서 4장 3절 말씀을 붙잡고 평화운동을 주도했다. 1982년부터는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교회에 모여서 월요평화기도회를 시작했다. 미가서 4장 3절 말씀은 창과 칼을 쳐서 쟁기와 낫을 만들고,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없을 것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군 입대를 거부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한 청년들의 수고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

름답고 상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도시 전체가 구원받듯이, 소수 동독 청년들의 신실한 믿음과 수고에 하나님은 통일이라는 상을 베푸셨다.

교회는 통일 이후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했다. 동독의 비밀경찰들이 인권침해를 하면서 주민들을 괴롭혔다. 그들에게 시달렸던 사람들이 통일 이후 보복을 할 경우 사회는 혼란스러울 수 있었다. 그러자 교회가 화해와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것을 강조했다. 교회가 진정한 통일에 필요한 인간 내면의 벽을 허무는 영적 수고를 감당했다.

한반도의 통일 방안과 교회의 역할

한국의 통일 방안이 ‘단계적 통일’인지 아니면 ‘흡수 통일’인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다. 현재 독일 작센 주의 주지사이자 독일상원 의원 의장을 맡고 있는 틸리히의 주장에 따르면 단계적 통일보다는 흡수 통일이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단계적 통일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실행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알고 있다. 단계를 몇 단계로 하고, 그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계적 통일은 실제로 통일을 하지 말자는 의견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단계적 통일 방안은 탁상공론 내지는 먼 미래의 구상일 수 있다.

흡수 통일은 일단 통일을 하고 그 뒤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형태이다. 통일에 따른 문제들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제 해결의 압박을 받게 된다. 틸리히는 압박이 성장과 발전에 약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고 본다.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압박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도 통일이 되고 시장경제와 경쟁사회를 도입하면 남한과 같은 눈부신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동독에 속했던 작센 주가 모범적으로 발전하고, 서독의 일부 주보다 부유해질 수 있었던 비결은 높은 교육열과 교육에 대한 투자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사람들이 보유한 높은 교육열은 경제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 비용은 피할 수 없는 부담이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차이는 현실이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 지불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단지 그 비용을 누가 얼마나 지불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북한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하면서 비용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단기적으로 차입이 필요하면 남한이 차입에 필요한 보증 등을 통해 도와주지만, 차입금 상환은 북한 사람들이 벌어서 갚아가도록 하면 된다. 이 경우 남한은 통일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남한은 북한 시장이 확대되면서 자신들의 상품을 더 많이 팔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된다. 북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수록, 남한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통일 비용이 적어진다. 독일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남한이 그동안 보여준 경제발전과 외채상환능력을 고려해볼 때 북한도 자신들에게 부담된 통일 비용을 능히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가 짐 로저스는 한국이 통일된다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통일 이후 북한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다. 통일 비용은 한국 경제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교회들이 탈북민들을 섬기고 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탈북자가 80%를 넘는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많은 헌신과 노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쌀을 보내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개인이 통일 저축통장을 가지는 운동도 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접촉에 교회가 조금 더 독자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외에도 교회의 역할이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6월 25일을 화해와 용서의 날로 선포하고, 서로 마음의 문을 여는 운동을 펼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이 통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황의서 장로
(하나공동체, 통일위
원회 위원장)



19가지 관계기술 세미나에 참석한 성도들이 관계기술을 실습하고 있다.

깊은 내면 돌보는 '19가지 관계기술'

후속 강의 9월15일부터 금요일복예배 이후

회복사역본부가 주관한 '19가지 관계기술 세미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렸다. 성도 300명이 참석했다.

19가지 관계기술 세미나에서는 회복사역 전문가 크리스 코시(Chris M. Coursey)와 에이미 브라운(Amy Brown)이 '기쁨을 켜는 뇌기술들',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뇌기술들', '고

통을 해결하는 뇌기술들'을 주제로 강의했다. 19가지 관계기술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실습이 병행됐다. 19가지 관계기술은 '비언어적인 이야기를 하기', '슬픔, 분노, 두려움, 부끄러움, 혐오, 좌절 속에서 나답게 행동하기' 등이다.

현은옥 권사(순복음교회)는 "서로 눈을 마주치는 실습만으로도 가슴이 따듯해졌다"고 했고, 이민석 성도(서빙고 사랑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깊은 내면을 돌보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회복사역본부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기 못했거나 19가지 관계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성도들을 위하여 후속 강의를 진행한다. 9월 15일부터 12주 동안 매주 금요일 금요일복예배를 드리고 나서 강의를 진행한다.

문의: 02-3215-3532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간증

눈 마주치고, 마음 나누고, 소통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내 짝이 된 내 적지우학교 총무님과 친밀해진 것이다. 서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이 더 많았다. 이

번 19가지 관계기술 세미나에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 덕분에 서로 더 많이 알고, 친밀해질 수 있었다.

19가지 관계기술 훈련을 통해 서

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 뜻 깊었다. 상처주지 않고 단점을 고치고, 보완한 시간도 의미 있었다. 19가지 관계기술 훈련을 배우자 함께 받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상처와 아픔이 있거나 지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훈련을 권하고 싶다. / 박효식 총무(기쁨의 회복학교)

대청, 바이블 아카데미 9월 13일 개강

기독교세계관, 재정관리 위한 과정 신설

청년들에게 성숙, 헌신, 영향력을 키워주는 바이블 아카데미(Bible Academy)가 9월 13일 개강한다. 일대일 양육자반만 9월 9일 개강한다. 바이블 아카데미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양재, 이룸 센터에서 진행된다.

바이블 아카데미는 리더십 훈련을 위한 필수과정, 영적 성장을 위한 선택과정으로 운영된다. 필수과정은 CDC(Christian Discipleship Course), XEE(X-generation Evangelism Explosion), 큐티베이직, 일대일 양육자반이다. 선택과정은 그

리스도인의 로마서, 이사야, 성경탐구 40일, HOW(Heart of Worship), OWA(Onnuri Worldview Academy), CFC(Christian Financial Course), Why Mission?, 나를 발견하는 여행이다.

신설된 과정도 있다. OWA와 CFC가 그것이다. 올바른 기독교세계관을 정립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는 청년은 OWA, 바른 재정 관리 방법을 알고 싶은 청년은 CFC에 참여하면 된다. 회비는 과목당 4만 원. 큐티베이직은 3만 원.

문의: 02-3215-3759

일대일 제자양육 심포지엄 개최

제1회 일대일 제자양육 심포지엄이 9월 23일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개최된다. 지난 31년 동안 진행된 일대일사역을 돌아보고, 일대일사역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일대일 제자양육 심포지엄에서는 이기훈 목사가 '일대일 제자양육의 성경적 의미와 목회적 적용', 정호욱 목사가 '일대일사역이 한국 교계에 미친 영향', 노희태 목사가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한 기대', 황재명 목사가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의 평가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강의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아트비전,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 전시회

과천 선바위미술관에서 9월 16일까지

아트비전이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 영광)를 주제로 '제5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KCAF) 전시회'를 개최한다. 9월 4일부터 16일까지 과천 선바위미술관에서 진행된다. 9월 12일은 휴관한다.

제5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

스트 전시회에는 백석대학원기독교미술선교회, 사랑의교회미술인선교회, 샘미술선교회, 영락교회미술인선교회, 지구촌전문인미술선교회 등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미술인들이 동참한다.

문의: 선바위미술관(02-507-8588)

주소: 경기도 과천시 무네미길 34

서빙고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생 모집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전도 강좌가 열린다.

14기 서빙고 온누리전도학교에서 훈련생을 모집한다. 9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주일 오전 8시 5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CGNTV홍보관에서 진행된다.

온누리전도학교에서는 복음의 핵심을 5분이면 전할 수 있는 '온누리 5분전도', 전도대상자들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반대질문' 등의 강의를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

문의: 010-3226-4364

열린다성경 세미나 수강생 모집

성경을 쉽게 풀어주는 '열린다성경 세미나'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양재 드림홀에서 진행된다.

열린다성경 세미나에서는 '술

로몬은 왜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했을까?',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예수님은 왜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까?' 등을 주제로 류모세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010-2414-4820

CMN, 미용스쿨, 수기요법, 발마사지 강좌

9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의료선교회 CMN(Christian Medical Network)이 미용, 수기요법, 발마사지 강좌를 개최한다. 미용스쿨은 9월 5일, 수기요법 9월 12일, 발마사지 9월 13일 개강한다.

미용스쿨은 중급자 과정이다. 기본 컷트, 파마, 염색 방법을 가르쳐 준다. 9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미션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5만원.

수기요법은 초급, 중급, 고급반이 개설된다. 수기요법은 신체 주요부위 혈자리 지압, 흔하게 일어나는 부위별 증상에 대한 치료, 부위별

운동법 등을 가르쳐 준다. 9월 12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서빙고 꿈터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8만원.

발마사지 강좌에서는 발 관리 개념부터 요법, 관리 영역, 발의 구조, 피부 마사지, 아로마 테라피 등을 가르쳐 준다. 9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양재 사론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5만원.

문의

미용스쿨: 010-9034-5369

수기요법: 010-9267-7123

발마사지: 010-9782-0777

/ 김영선 기자

남양주 전교인 기도회 개최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하반기 개강을 맞아 전교인 기도회를 개최했다.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1박2일 동안 진행된 기도회에는 성도 79명이 참석했다.

기도회 첫날에는 '성령이 쏟아져 내리면'을 주제로 뜨겁게 기도했고, 둘째 날에는 하용조목사기념관과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을 탐방했다.

장로칼럼

하나님이 주신 꿈 ‘부천 중국어예배’



허복만 장로
(부천 온누리교회 중국어예배 담당)

우리나라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유학생들과 다문화 가정 등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와 있다. 그들의 절반(조선족 70만 명, 한족 30만 명) 이상이 중국인들로 집계되고 있다. 부천 온누리교회 주변에도 부평, 서인천, 김포 등지에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와 있다. 부천은 전국에서 중국인 노동자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인근에 가톨릭대학, 유한대학, 부천대학, 서울신학대학, 경인교육대학, 인하대학, 인천대학 등에도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 중국 교회와 나아가 세계 교회를 깨우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시는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한다.

미래 중국선교의 인적 자원개발을 위해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과 조선족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가 필수적이다. 우리 동포인 조선족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차별과 더불어 언어와 문화의 차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과의 충돌 등이 바로 그것이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조선족들은 중국의 언어와 문화에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중국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찍이 준비해 놓으신 귀한 선교의 자원일 수 있다. 또 공부하러 이 땅에 들어온 중국인 유학생들은 미래 중국사회를 이끌어 나갈 잠재적 리더십들이다. 그들은 한국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을 얻기 위해 왔다. 그런데 그들이 나그네가 되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정말 얻어야 하고 만나야 하는 분은 따로 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가치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부천 온누리교회는 2016년 중반부터 중국어예배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다. 2017년 2월부터 중국어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매주 기도모임을 가졌다. 8월부터는 15~20명이 주일 오후 2시 한동홀에서 중국어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했다. 그렇게 8월 27일 정식으로 중국어 창립예배를 드렸다.

부천 중국어예배는 먼저 영혼구원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전도와 양육을 통해 조선족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함은 물론이고 선교사적 사명을 갖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또한 ‘Acts 29’ 비전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보여주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 줄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의 문제에 귀 기울여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돕고 섬길 것이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효과적인 선교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복음으로 거듭나도록 돕고, 체류 기간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현지에서 있는 선교사님들과 연결을 시켜줄 계획이다. 그들이 선교사 훈련을 받아서 임지로 파송되는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하여 교회 개척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부천 온누리교회 중국어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비전을 향해 첫발을 내딛으려고 한다.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권사칼럼

기적과 은혜 그리고 소망



조다남 피택권사
(송파공동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1다락방 1사역’이라는 타이틀로 교회 전체가 지역사회를 돌아보며 선교를 하게 되었다. 마리아 다락방 특성상 평일 낮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송파구 어르신들에게 식사대접을 했다. 아침 9시 20분에 도착해서 120인분의 식사대접을 위해 야채를 다듬고, 볶고, 무치고, 끓이고, 서빙하고, 설거지까지 하고 나면 오후 2시가 다 되어 끝이 났다. 이 사역을 7개 순이 돌아가면서 1년 동안 월 2회 해 왔다. 그러던 어느 주일 날, 이재훈 목사가 설교에서 “더 낮은 곳에서 나를 낮추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입술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셨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멍해졌다. 그동안 조금 더 수월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곳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장님들과 순종강예배 전에 회의를 했다. 이미 두 개 다락방에서 섬기고 있는 탈북청소년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을 섬기자는 의견이 나왔다. 생필품 하나부터 열까지 공급하다보니 두 개 다락방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 마리아다락방도 그 사역에 합류하게 되었다. 학생들 밀반찬은 무조건 우리가 책임진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몰랐고, 한두 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남·여학생 17명이 먹어야 하니 양이 만만치 않았다. 처음에는 반찬 종류를 두세 가지로 정했는데 내 자녀들에게 먹인다 생각하니 날이 갈수록 양이 많아지고 가짓수도 많아졌다.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사역을 어떻게 매번 하느냐고 부담감이 굉장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먹

일 수 있을까를 걱정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학생들의 생활공간은 많은 것이 부족한 상태였다. 밥솥도 없고, 선풍기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밥그릇과 컵 같은 식기구도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을 정도였다. 사감선생님의 요청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모으기 시작했다. 정수기, 책상, 밥솥, 선풍기 등이 다락방 내에서 모여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기적이고 은혜였다. 밀반찬만 두고 오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하게나마 기도도 하고 나왔다. 이 사역을 한두 달 하다 보니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마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과 교회는 그냥 싫어했던 학생들이었다.

하루는 학생들이 소원이 있다고 했다.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한강에서 삼겹살 바비큐를 먹는 것이라고 했다. 이 소박한 소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날 이후 공동체 리더십 수련회에 학생들을 초대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학생들의 표정이 변하고 행동이 변했다. 기도하는 학생이 생기고, 기도제목을 주면서 기도해달라는 학생도 있었다. 정말 큰 변화였다.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올해 1월부터는 탈북 여성 쉼터에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탈북 여성 쉼터는 강서구 등촌동에 있다. 20~40대 탈북 여성 40명과 자녀 4명이 생활하고 있다. 대부분 장기간 쉼터에서 머무는데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도 탈북 여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장소이다. 젊은 탈북 자매들이 학교와 직장을 다니면서 꿈을 키우고, 미혼모 탈북 자매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소중한 보금자리이기 때문이다. 탈북 여성 쉼터에서 머무는 자매들이 탈북기숙사 학생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 삶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당장 식료품, 의류, 생활용품 등이 절실하다.

문의: 010-6285-2283

신앙에세이



허원희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한누리사역)

안 마텔이 쓴 <파이 이야기(Life of Pi)>라는 장편소설이 있다. 우리에게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로 더 익숙하다. 이 이야기에는 수많은 의미와 철학적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리처드 파커’라는 배갈호랑이에 대한 것이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파이’라는 소년이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식구들을 다 잃고, 함께 배에 타고 있던 동물원 호랑이 리처드와 무려 227일 동안 구명선에서 살아남는 내용이다.

이 영화는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고, 영

상마저 지극히 아름다워 아카데미 감독상은 물론 촬영상, 시각효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나의 뇌리에 남아있는 것은 다른 장면이 아니라 구명선에서 파이와 죽느냐 사느냐를 두고 실랑이를 벌인 호랑이다. 이 호랑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왜 하필 ‘리처드 파커’라는 사람의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한 사람이 망망대해에서 무려 227일 동안 살아남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파이는 살아남았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바로 호랑이 덕분이다. 매순간 호랑이와 긴장 상태로 대치하다보니 시간도 빨리 흘렀고 생존본능이 발동해서 살아남게 된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그토록 으르렁 거리고 당장이라도 파이를 잡아먹을 것 같은 호랑이가 육지에 도착하니 파이에게 눈인사를 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자기의 역할을 다 한 것이다.

내가 수년 전 보았던 이 영화를 기억하며 글

호랑이와 동거하기

을 쓰고 있는 이유가 있다. 바로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는 평온한 상태지만 해외에서는 조만간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과거에도 수차례 있어왔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예전과 많이 다르다. 북한의 행동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에게 있어 함께 구호선을 타고 있는 호랑이 같은 존재이다.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지 모른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필요악이라는 생각도 든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적과의 동침을 해야 하는 운명에 놓인 것이다. 그런데 호랑이를 머리 위에 두고 전쟁 걱정 없이 향락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나 등장할 법한 여러 사회문제(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로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계적인 제국들 사이에 끼어 살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긴장상태를 유지시킨 것이다. 우리나라가 왜 북한과 70년 이상 대치하고 있는가? 왜 통일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호랑이는 아직 배에 함께 타고 있고 육지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육지에 도달하면 호랑이가 사라지듯이 우리 위에서 핵도발로 시위하는 어두운 정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낙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면 당장 호랑이에게 잡혀 먹을 수 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경각심을 갖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제대로 삶을 살아야 호랑이와 함께 동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다.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배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방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일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 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 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 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 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우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 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 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일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장소: 9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신관 4층 누리를

양재: 본관 지하 3층 JDS홀

일산: 일산공동체 비전센터(일산호수병원 4층)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요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함)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67회 성령수련회

장소: Acts29 비전빌리지(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서빙고 12:30 출발, 양재 13:30 경유

시간: 9월 23일~24일(토, 일 1박2일)

문의: 서빙고(황보은선 권사 010-7120-5221)

양재(김현옥 집사 010-8955-3610)

온누리 선교 오리엔테이션(OMO)

일시: 10월 14일(토) 오전 10시 ~ 12시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문의: 남승도 간사(02-3215-3216)

온누리 남성 선교합창단 모집

시간: 매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서빙고 한동홀

준비: 찬송가 1곡

문의: 신용환 총무 (010-8695-8341)

김포M센터 꿈땅 장난감 모집

대상: 유치부와 초등부

문의: 민경윤 전도사(010-2997-4347)

온누리 창조과학 스쿨 모집

일시: 9월 10일~10월 22일 매주일

오후1시 30분~3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 CGNTV 홍보관

문의: 010-3869-7785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 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 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 주 수

9월 17일, 한 영혼을 섬기는 CGNTV의 “5만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세계적인 아티스트부터 산골짜기 목사님까지
오늘도 CGNTV와 함께하는 든든한 선교의 동역자들
정기후원 특집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감동스토리를 만나봅니다.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내 삶을 연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교적 삶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9월 11일 (월) 오전 11시 방송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CGNTV로 세워가는
고향교회 어린이들의 믿음

동서비전교회 김일연 목사
9월 11일 (월) 오전 11시 30분 방송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악가,
CGNTV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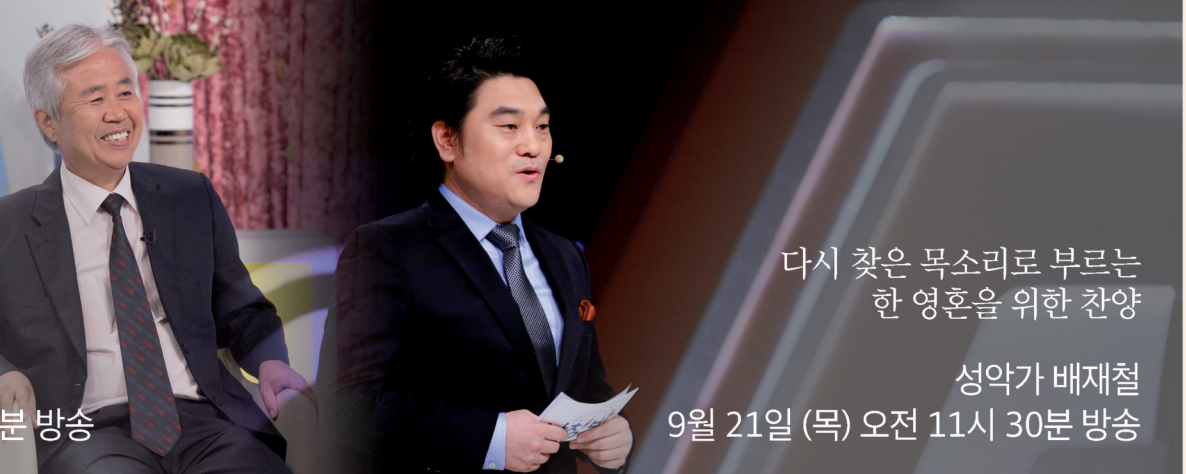
소프라노 김영미
9월 15일 (금) 저녁 10시 40분 방송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CGNTV 직원들의 섬김,
그리고 새롭게 품은 꿈

배넰실교회 이춘식 목사
9월 14일 (목) 오전 11시 30분 방송



다시 찾은 목소리로 부르는
한 영혼을 위한 찬양

성악가 배재철
9월 21일 (목) 오전 11시 30분 방송